‘괌에서… 日에서’ KIA 주전경쟁 돌입

이종범 등 야수조 16명 어제 미야자키 캠프 출국

투·포수조도 29일 日 합류…‘옥석가리기’ 본격화

호랑이들의 생존경쟁이 본무대에 올랐다.

KIA 타이거즈의 외야수 이종범과 신인 홍재호·이인행(이상 내야수) 등 야수조 16명이 17일 전지훈련지인 일본 미야자키로 떠났다.

앞선 11일 KIA 투·포수조가 괌 캠프로 출국한데 이어 야수조까지 전지훈련 모드에 돌입하면서 2010 시즌을 향한 주전 싸움이 본격화됐다.

먼저 전지훈련에 돌입한 투·포수조는 오는 27일까지 훈련을 진행한 뒤 일시 귀국, 29일 야수조가 머물고 있는 미야자키로 자리를 옮긴다.

이후 KIA 선수단은 오는 3월3일까지 기술훈련과 연습경기 등을 통한 전력 가다듬기에 총력을 기울인다.

조범현 감독이 괌 캠프를 진두지휘하는 동안 황병일 수석코치는 일본 캠프를 이끌며 ‘옥석가리기’에 나선다.

괌 캠프 일정이 마무리되는 27일 1차 평가가 내려진다. 괌 캠프에서 마운드 구상을 하고 있는 조범현 감독은 27일까지 훈련을 지켜본 뒤 일본으로 건너갈 ‘생존자 명단’을 발표한다.

두 명을 탈락자 명단에 넣을 계획이지만 조범현 감독의 평가에 따라 그 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전원 일본 캠프로의 합류 통지서를 받을 수도 있다.

일본에서도 매일 생존경쟁이 벌어진다. 야수조는 출국 전날인 16일에도 무등경기장야구장에서 체력훈련과 기술훈련을 하면서 구슬땀을 흘렸다.

“12월 자율훈련기간 동안 전반적으로 자기 관리를 잘한 것 같다”고 선수단을 평가한 황병일 코치는 “하지만 더 치열하게 준비를 해야하는 만큼 전지훈련과정에서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선수는 곧바로 귀국시킬 방침이다”고 밝혔다.

외부에서의 전력보강 없이 내부 경쟁이 전개되면서 2010 전지훈련 분위기는 어느해보다 뜨거울 전망이다. 조범현호 출범 이후 첫 전지훈련에 나서는 이들도 많아 분위기는 한층 더 고조됐다.

2009시즌 최고의 영웅 김상현도 이적 이후 첫 캠프다. 김상현과 함께 새둥지를 틀었던 박기남을 비롯해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마운드 예비역 4인방’ 신용운·김희걸·이상화·차정민에게도 첫 시험대다. ‘좌완 루키’ 심동섭·임기준과 야수조 홍재호·이인행 등 신인 선수에게도 프로 입단 후 처음 참가하는 전지훈련이다.

한편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김종국·홍세완·장성호 등 노장 선수들은 일단 2군 선수단과 강진캠프에서 몸을 만든 뒤 일본으로 건너갈 방침이다.

KIA, 의약품·김치 등 화물만 2.5t

두산과 같은 비행기…새벽부터 ‘짐 수송’ 강행군

KIA 타이거즈 야수조 선수들이 캠프 첫날부터 강행군을 했다.

KIA 선수들이 17일 오후 4시 아시아나 항공편으로 전지훈련지인 일본 미야자키로 출국했다.

비행기 출발시간은 오후 4시였지만 선수들은 이보다 6시간이나 빠른 오전 11시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선수들이 이른 시간부터 부지런을 떨어야 했던 이유는 대규모의 짐꾸러미 때문이었다.

이날 KIA가 광주에서 미야자키로 공수한 화물만 2.5t 분량이다. KIA 선수들의 개인장비와 짐, 훈련에 사용할 야구공, 선수들의 건강을 책임질 의약품에 김치까지 40여일 일정을 보내기 위한 짐이 산더미였다.

여기에 역시 미야자키에 훈련캠프를 차린 두산 베어스가 이날 같은 비행기로 출국을 하면서 KIA 선수들은 ‘짐과의 전쟁’에 대비해 일찍 광주를 떠난 것이다.

다행히 새벽같이 길을 나선 KIA 선수들의 출국절차가 완료된 뒤 두산 선수들이 공항에 나타나면서 우려했던 혼란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른 시간부터 짐과의 전쟁을 벌인 탓에 녹초가 된 KIA 선수들은 면세점 쇼핑 대신 모처럼 만난 두산 선수들과의 수다로 출국시간을 기다리며 캠프 일정을 시작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환상 호흡 이용대(오른쪽)-정재성이 17일 오후 서울 올림픽공원 펜싱경기장에서 열린 2010 빅터코리아오픈 배드민턴슈퍼시리즈 남자복식결승에서 중국 차이윈-푸하이펑을 상대로 공격을 하고 있다. 이-정 조는 세트스코어 2-1로 승리하며 국제대회 5연속 우승을 달성했다. /연합뉴스

이용대-정재성조 셔틀콕 ‘세계 최강’

코리아배드민턴 중국조 꺾고 5연속 우승…여단 성지현 준우승

한국 셔틀콕의 기둥 이용대(22·삼성전기)-정재성(28·국군체육부대)이 3년 만에 빅터코리아오픈 배드민턴슈퍼시리즈에서 우승하며 국제대회 5연속 우승도 달성했다.

세계랭킹 2위의 이용대-정재성은 17일 올림픽공원 펜싱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남자복식 결승에서 중국의 차이윈-푸하이펑(세계랭킹 7위)을 맞아 세트스코어 2-1(21-11 14-21 21-18)로 승리했다.

2007년 이 대회에서 우승한 이-정 듀오는 이번 대회 우승으로 최근 국제대회 5개를 모두 싹쓸이하는 저력을 보였다.

작년 세계선수권대회 이후 홍콩슈퍼시리즈, 중국슈퍼시리즈, 화순코리아챌린지, BWF 슈퍼시리즈 등 나가는 국제대회마다 우승해 왔다.

이용대-정재성은 1세트에서 10-10까지 팽팽한 접전을 펼쳤으나 이후 탄탄한 수비와 정재성의 강력한 스매싱을 앞세워 리드하기 시작했다. 상대를 11점에 묶어 놓고 13점에서 내리 8점을 따내 세트를 가져왔다.

잦은 범실 탓에 2세트를 내 줬지만 3세트에서는 이용대의 눈부신 활약이 빛을 발했다. 팔꿈치 부상이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리시브와 드라이브 대결에서 절묘한 감각을 과시했다. 14-14 동점에서 연속 리시브로 상대를 압박해 16-14로 앞섰고, 16-15에서는 넘어지며 리시브에 성공해 상대 범실을 유도했다.

이용대는 18-18에서 드라이브 공격으로 1점을 보탰고 상대 범실로 1점을 추가했다. 이어 정재성의 대각선 공격으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앞서 열린 여자단식에서는 이번 대회에서 돌풍을 일으킨 성지현(19·창덕여고)이 중국의 벽을 넘지 못하고 준우승에 머물렀다.

성지현은 세계랭킹 12위의 왕스센을 맞아 끝까지 분전했으나 세트스코어 0-2(10-21 23-25)로 아쉽게 무릎을 꿇었다. /연합뉴스

코리언 브라더스 ‘멀어진 우승컵’

소니오픈 셋째날…최경주·양용은 공동 44위 머물러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소니오픈에 출전한 한국 선수들이 좀처럼 상위권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지 못했다.

힘겹게 컷을 통과했던 최경주(40)는 17일(한국시간)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 와이알레이 골프장(파70.7천68야드)에서 열린 대회 사흘째 이글 1개에 버디 3개, 보기 2개를 곁들여 3언더파 67타를 쳤다.

최경주는 이번 대회 들어 처음 60대 타수를 적어내며 중간합계 2언더파 208타의 성적표를 제출했지만 순위는 공동 44위에 머물렀다. 8번홀까지 버디 2개를 보기 2개와 맞바꾼 최경주는 9번홀(파5)에 이어 10번홀(파4)에서 1타씩을 줄였지만 이후 7개홀 연속 파행진을 벌였다.

하지만 최경주는 18번홀(파5)에서 220야드를 남기고 친 두번째 샷을 홀 1.5m에 붙인 뒤 한번의 퍼트로 마무리하며 기분 좋은 이글을 낚았다.

양용은(38)도 더블보기에 발목이 잡혀 최경주와 같은 공동 44위(2언더파 208타)에 자리했다.

14개홀까지 버디 2개와 보기 1개로 1타를 줄이던 양용은은 15번홀(파4)에서 세번째 샷만에 볼을 그린 위에 올린 뒤 1.2m짜리 보기 퍼트를 넣지 못해 2타를 잃고 말았다. /연합뉴스

테니스 스타들 ‘아이티 돕기’ 자선매치

페더러·나달·서리나 등 동참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스위스)와 ‘흑진주’ 서리나 윌리엄스(미국) 등 코트의 별들이 아이티 지진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온정의 라켓을 들었다.

시즌 첫 테니스 메이저대회인 호주오픈에 참가하기 위해 멜버른을 찾은 페더러는 뉴스를 통해 지진 피해로 고통받는 아이티의 참상을 지켜봤다.

페더러는 이대로 앉아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 호주오픈 조직위원회에 긴급 자선 경기를 제안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17일 멜버른의 로드 레이버 아레나에서 열린 경기는 불과 24시간 만에 ‘급조’됐지만 꽤 많은 스타들이 나왔다.

페더러와 라이벌 라파엘 나달(스페인), 서리나, ‘컴백 퀸’ 킴 클리스터스(벨기에),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 앤디 로딕(미국), 레이튼 휴이트(호주) 등 톱랭커들이 뜻을 모았다. /연합뉴스

작년 국내선수 도핑 17건 적발

도핑방지위 출범 후 최다

작년에 도핑을 했다가 적발된 선수가 한국반도핑위원회(KADA)가 활동을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위원회에 따르면 2009년 국내 검사와 국제연맹과 국제스포츠기구의 요청으로 실시된 검사 3천300여 차례에서 금지약물 양성반응을 보인 선수는 보디빌딩과 스쿼시 등 17명으로 집계됐다.

위원회가 발족해 검사를 시작한 2007년 이후 반도핑규정 위반자는 2007년 6건, 2008년 13건(지도자 1명 포함)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연합뉴스

한라 친환경 전동운반차

농림부 농기계 구입자금 융자 연 3%
(1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

농촌, 과수원·농장에도~
하우스에도~
마트·시장에서 배송할때도~
창고에도~

월 전기료 5,000원

안전한 운송수단을 원하신다면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한라 전동운반차로 바꾸세요!

대리점 취급점 영업사원 딜러모집
농기계 관련 사업자
유사업종 경험자

무공해 친환경 전기에너지를 사용합니다
• 월 전기료 약 5,000원 정도로 부담이 적은
• 공신력 있는 제품이라 소음과 진동이 거의 없다.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A/S
• 부품의 신선도를 위생적인 A/S가 가능하다.

장기저리 농협융자를 통한 초기 구매부담 최소화
• 판매가의 90% 장기저리융자, 1년 거치 5년 상환, 연리 3%
• 충전시 40km운행(적재량 200kg)

일반 유류 운반차 유류비용으로 한라 전동 운반차 자금 가능

믿음과 화합으로 번영하는 한라그룹
한라웰스텍(주) HALLA Welthtech Corp.
구입문의 TEL 062) 956-8823 061) 852-8896 H·P 010-9468-3282

국토해양부 지정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원
(부동산 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건물 2,000㎡·토지 3,000㎡ 이상 부동산개발(건축허가등)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위해서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을 상시 채용하여야 등록 가능!!

◎ 교육일시 및 장소
- 2010.01.21.(목) ~ 2010.01.26.(화) / (총 60시간 강의)
- 광주대학교 극기관 3층 305호

◎ 교육대상

구분	전문인력의 유형
자격자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개발업 3년 종사자) 건축사, 건설기술자(고급·특급), 자산운영관리인력 등
학·석사 학력자	4년제 대학 해당학과 또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개발업법인 등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실무경력자	국가·지자체,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금융기관중 개발업무 관련 종사자, 개발업 관련 법인 대표자 등

※ 수강하고자 하는 분들은 등록 전 수강자격 등에 대하여 사무국으로 문의바람
◎ 교육비 : 67만원 (교재 및 점심식사 제공, 강의를 시작한 이후 환불은 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www.gred.kr 참조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되려면 국토해양부 지정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원에서 전문교육을 꼭 이수하여야 합니다.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원
문의/전/화 www.gred.kr
• 원장 이명규 교수 062)670-2421 • 사무국 김병철 062)233-3119
• 부원장 강동욱 변호사 062)233-3119 f.062)233-3117

대표:성 봉 규 (법원등록번호 16-07-29)
·전 호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우회장
·전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제5대 총원우회장
·(주) 시담법인 광주이카데미 공동대표
·전 경실련 자문위원장
·전 서광주경찰서 자문위원장
·전 대한공인중개사협회 광주지부장
·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사
·전 355-B1지구 전남라이온스클럽 33대회장
·현 355-B1지구 자문위원장

해령법률경매 사원 모집중
T:062)430-7117 H.P:011-629-0827 김팀장 위치:법원정문앞

근린주택(광주·전남 지역)

지역	소재지	건/대(㎡)	감정가	최저가
동구	지산동	2871/827	12억7천	7억
서구	농성동	198/348	6억4천	4억5천
	양동	415/2244	16억7천	11억7천
북구	두암동	1470/2473	37억6천1백	12억3천2백
나주시	성북동	172/304	3억2천	1억1천
화순군	춘양면	101/75	1천8백만원	1천
장성군	북하면	1875/561	4억5천	2억8천
영광	법성	373/617	4억4천	2억4천

근린시설(광주·전남 지역)

지역	소재지	건/대(㎡)	감정가	최저가
북구	용봉동	536/1593	12억8천	7억1천7백
서구	금호동	320/1186	10억	7억3천
남구	송하동	457/1850	13억	4억7천
동구	광덕빌딩	264/926	7억	4억8천
나주시	중앙동	369/798	5억8천	3억8천
장성군	삼계면	411/1047	6억5천	3억8천
영광	홍농읍	660/1123	4억8천	2억7천
담양군	수북면	863/876	4억18백	1억5천
장흥시	장흥읍	182/485	4억4천	2억5천
목포시	산정동	170/814	5억8천4백	3억2천
영암군	영암읍	1035/292	1억8천	8천4백
무안군	무안읍	2360/3083	1억	7천

근린상가(광주·전남 지역)

지역	소재지	건/대(㎡)	감정가	최저가
광산구	광암동상가	51/28	2억8천5백	1억4천8백
북구	용봉동	43/13	1억8천	1억2천
남구	봉선동	61/38	4억5천	2억
서구	매월동	192/202	2억7천	1억2천
	금호동	35/15	2억8천	1억8천
동구	학동태그	25/18	4천	2천2백
	충장로	6/3	1억	5천6백
목포시	용당동	68/22	8천5백	3천

주택(광주·전남 지역)

지역	소재지	건/대(㎡)	감정가	최저가
광산구	본덕동	908/144	1억	6천
	우남동	465/176	2억2천	1억5천
남구	월산동	139/129	1억	6천
	봉선동	117/256	1억3천8백	7천7백
서구	화정동	137/97	6천3백	5천8백
	동천동	132/78	6천4백	3천8백
북구	조봉동	254/164	1억8천	1억7백
나주시	부덕동	791/345	3천9백	2천7백
	산포면	252/91	4천7백	3천2백
	노안면	397/152	2천9백	2천
	금천남평	1395/140	5천4백	2천
함평군	함평읍기각	384/236	4천4백	신
장흥군	장흥	668/148	4천4백	3천
함평군	월야	496/74	4천7백	
	수북면	221/98	1천8백	신
영광군	영광읍	881/66	1천8백	신
	군서면	514/74	2천	1천4백
장성군	삼서우치리	668/148	4천4백	3천1백
화순군	동면	255/56	4천1백	2천2백
	도곡	653/77	1억8천	1억1천

토지(광주·전남 지역)

지역	소재지	지목	면적(㎡)	감정가	최저가	비고
광산구	동산구	임야	15554	1억1천	8천	보전관리
	생림동	대지	882	11억	8억9천	상업지역
	월곡동	답	1491	1억8천	1억2천	생산녹지
	신룡동	답	1217	2천1백	신	자연녹지
북구	문흥동	주차장	1049	3억2천	2억2천	2종일반주거
	청풍동	답	3104	3천8백	2천	자연녹지
서구	농성동	대지	55	1억	7천2백	2종일반주거
	내방동	대지	157	7천5백	5천2백	2종주거
	치평동	대지	1980	10억	7억	2종주거
동구	용산동	임야	13902	2억8천	6천5백	보존녹지
나주시	문평	답	5980	5천9백	신	전용구역
	봉황면	전	1673	3천1백	1천7백	생산관리
	노안면	전	2003	1억4천	8천8백	자연녹지
	동강면	답	1955	1천8백	1천1백	농림지역
	남평읍	전	398	8천	5천3백	도시지역
담양군	대덕면	임야	12198	2천	8백	보전산지
	창평면	답	2780	4천4백		농림
	금성면	잡종지	1041	1억9천	1억3천	계획관리
	월산면	임야	9559	5천7백	4천	준보전산지
	담양읍	답	4835	1억2천	5억7천	2종일반주거
화순군	화순읍	대	357	3억1천	2억1천	상업지역
	북면	임야	2631	9천8천	2억2천	계획관리
	한천면	답,전	9046	7천5백	5천2백	계획관리
	도곡면	임야	6744	2천	신	농림지역
영암군	덕진면	답	4336	3천9백		농림지역
	군서면	임야	3723	4천7백	3천3백	계획관리
	군서면	답	4969	3천9백		농림지역
	학산면	임야	5338	1천9백	9백	계획관리
	신북면	답	2975	2천	8백	농림지역
장성군	장성읍	답	1782	5천5천		도시지역
	삼계면	답	2648	7천4백		도시지역
	동화면	대지	3980	1억4천	신건	준주거
	삼계면	답(과수)	1934	2천8백	신	농림지역
함평군	월야면	답	1458	8천7백	신건	계획관리
	신광면	답	3053	2천2천	1천8백	농림지역
	엄다면	답	1688	1천5백	1천	농림지역
	손불면	답	4730	5천7백	3천9백	농림지역
무안군	삼향읍	임야	4869	4억	신건	농림지역
	망계면	목장용지	18508	5억7천	2천3천8백	보전녹지,근린
	일로읍	임야	3990	1억1천	8천2백	농림지역
	현경면	답	2142	4천7백	3천2백	자연보전
곡성군	입면	답	2848	3천7백	신	농림지역
	겸면	대지	499	2천8백	신	일가시설
	석곡리	잡종(주유	2823/373	1억8천4백	1억3천	계획관리
	고달면	임야	5851	7백	신	계획관리
	삼기면	답	2412	2천4백	1천6백	농림지역
	입면	답	2300	2천4백	신	농림지역

농가시설

지역	소재지	지목	면적(㎡)	감정가	최저가	비고
장흥군	용산	목장	5726	8천	신	계획관리
나주시	공산면	목장	4938	3억1천	1억7천	계획관리
함평군	해보면	축사	2586	1억3천	1억1천	계획관리
영광군	홍농읍	축사	8284/2810	5억8천	2억	생산관리
영암군	금정면	축사	8685	8천1백	6천4백	보전관리

숙박시설(광주·전남 지역)

지역	소재지	토/건(㎡)	감정가	최저가	비고
동구	북구	884/1988	5억5천	3억1천	
	광산구	588/1812	19억9천2백	11억1천5백	
	남구	538/1388	14억1천8백	5억	
무안군	무안읍	11741/1327	11억2천4백	3억2천	관리지역
구례군		2020/1490	7억1천	5억	
순천시	장천동	353/595	4억8백	2억8천8백	
여수시	봉산동	857/1842	8억9천	3억8천	상업지역
화순군	도곡리	2042/2796	19억4천5백	8억7천1백	

창고(광주·전남 지역)

지역	소재지	토/건(㎡)	감정가	최저가	비고
광산구	소촌동	374/643	4억9천	신건	창고
	월계동	289/620	4억4천	3억1천	창고
북구	두암동	212/308	2억8천8백	1억8천	
남구	서동	380/844	5억	신건	창고
서구	유촌동	184/358	3억	신건	
	쌍촌동	227/375	2억7천		
동구	동명동	179/477	3억4천	1억5천	2종일반지역
	지산동	152/436	3억		

빌라(광주·전남 지역)

지역	소재지	토/건(㎡)	감정가	최저가
북구	두암동(홍은	88/50	1억1천	7천7백

공장(광주·전남 지역)

지역	소재지	토/건(㎡)	감정가	최저가	비고
광산구	오선동	1852/1829	0억		공업지역
	오선동	1852/1045	5억1천		
	오선동	1852/884	7억8천	5억5천5백	
	월곡	4297/5113	18억	11억	
북구	임동동	1188/1083	6억8천	4억7천7백	
	하지동동장	283/154	2억8천	1억7천	

아파트(광주·전남 지역)

지역	소재지	아파트명	토/건(㎡)	감정가	최저가
광산구	하남	주공	38/26	3천4백	2천7백
	신창동	5차호반베	84/49	1억6천	1억1천
남구	주월동	1차동부아파	83/45	1억6천	1억1천
	진월동	삼익세무리	162/85	1억8천	1억5천
		삼다아파트	81/38	1억4천	1억
동구		신동부뉴월드시	159/81	3억7천	2억5천7백
	학동	아남	137/50	1억8천	8천8백
북구	일곡동	롯데	170/79	2억8천	
	양산동	월드	58/31	8천5백	4천5백
		영무빌딩	84/43	1억2천	8천4백
	운암동	남광빌	111/72	1억8천	1억3천8백
서구		남광파크	98/46	1억7천	1억2천
		쌍촌파인힐	84/41	1억3천	
		금호리버시티			
해남군		아주임팰수퍼	88/73	4천8백	
화순군	화순읍	3차서리	59/21	4천4백	2천8백
목포시		삼환임우빌리	184/92	4억5백	2억8천
무안군	교촌리	대한기림	112/64	1억3천5백	7천5백

선택 가능합니다